영암 옥야리고분군서 마한 수장 추정 인골 출토

영산강 고대 마한문화 고분군 옹관묘에서 마한 수장으로 추정되는 인골이 출토돼 학계가 주목하고 있다.

29일 영암군에 따르면 (재)고대문화재연구원이 수행한 영암 옥야리고분군 시굴조사 결과, 원형에 가까운 옹관묘 내에서 비교적 상태가 좋은 인골이 확인됐다. 인골의 주인은 옹관묘의 화려함 등으로 볼때 고대 마한 수장으로 추정된다.

옥야리고분군에 대한 시굴조사는 영산강 고대 마한문화를 규명하고 사적 지정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시행됐다. 옥야리고분군은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576-4번지 일원에 소재한 마한시대 무덤들로 4~6세기에 조성됐다. 전남도 문화재자료 제140호로 지정됐으며, 마한문화를 계승한 영산강 고대 세력의 핵심 거점 중 한 곳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동안 옹관묘에서 인골이 출토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영산강유역 고대인의 생활상을 밝히는 데 더없이 소중한 자료로 인식하고 있다.

고대 인골이 중요한 이유는 사망 당시 나이와 성별뿐만 아니라 DNA 분석 등을 통해 고대인의 가족관계, 나아가 고대 한민족의 영양상태·질병 등 유전적 특질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굴조사에서는 한 봉분에서 영산강유역의 독특한 옹관묘와 함께 석재를 다듬어 쌓은 석실묘도 확인돼 영산강 고대사회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재)고대문화재연구원은 최근 영암 옥야리고분군〈왼쪽〉에 대한 시굴조사에서 옹관묘 내 마한 수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인골을 확인했다. 〈영암군 제공〉

옹관묘서 출토 사례 적어 학계 주목…석실묘도 발견
DNA 분석 등 통해 고대 마한시대 생활상 파악 기대

한 봉분 안에 구축된 옹관묘와 석실묘의 관계도 인골 분석을 통해 파악된다면 학계에서 논란이 되는 석실묘 출현 문제도 결론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계에서는 석실묘의 주인공이 '외래인인가', '현지인인가'를 놓고 논쟁이 뜨거운 상황이다.

김진희 고대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은 "옥야리고분군에서 원형에 가까운 옹관묘와 인골, 옹관묘와 석실묘가 같이 확인됐다"며 "DNA 분석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고대 마한 지배층의 생활상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이른 시일 내 옥야리고분군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이번에 확인된 옹관묘와 석실묘의 전모를 파악하고 마한문화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니 얼굴이면 공부 레알 열심히 해야돼!'
학벌없는 사회, 시대착오적 문구 사용업체 인권위 진정

입시 경쟁과 차별을 부추기는 시대착오적인 문구를 활용해 문구 상품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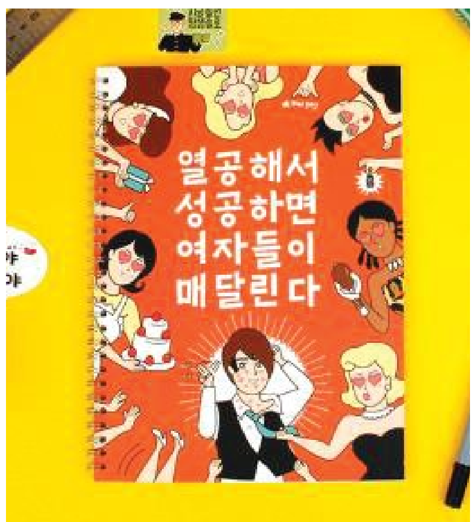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29일 디자인 용품업체 A사가 입시에 대한 경쟁의식과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혐오감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문구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성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최근 실태 조사에서 A사가 청소년들에게 입시에 대한 경쟁의식,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의 상품엔 여전히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열공해서 성공하면 저 남자가 내 남자다', '니 얼굴이면 공부 레알 열심히 해야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해당 업체는 수년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해 인권위 진정이 제기된 이후 사과문을 게재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또다시 이 같은 상품을 출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권위는 A사의 행위가 학력·성별·외모를 이유로 한 간접적인 방식의 차별 표시 및 조장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지만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상품을 회수·판매 중단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 진정 제출과 관련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런 표현은 학력·성별·외모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차별하고 조장해서 청소년한테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며 "즉각 판매를 중단하고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보험처리 못 받는다
국토부, 차보험 개선 추진…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 구상 청구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는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또 마약·약물 운전도 사고 부담금 대상에 적용토록 하는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부가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 조치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동안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사고부담금 상한을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이 추가된다.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동구 '자원순환형 도시환경 구현' 최우수

광주시 동구는 광주시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원순환형 도시환경구현 정책' 추진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돼 1억 8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광주시에서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추진했던 ▲자원순환 문화조성 ▲재활용증대 ▲음식물쓰레기 감량 ▲생활폐기물처리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동구는 지난해 '쓰레기 없는 마을' 원년으로 선포하고 2022년까지 3년간 쓰레기 15% 감량을 목표로 향기 나는 정원 15개소 조성, 청결모범업소 72개소 지정, 36개 기관 참여 1기관단체 1청결구역 관리 등 '쓰레기 없는 마을, 깨끗한 행복 동구'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청소혁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공고
광주시교육청

2022학년도 광주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 나왔다.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당해 연도 3월31일까지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른 '2022 고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출신 중학교를 기준으로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 배정 가능 고교가 정해진다.

중학교 성적을 3등급으로 나눠 고교별로 균등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적용하며, 선지원 20%·후지원 80% 추첨배정 하는 등 큰 틀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선지원에서 2개교는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후지원은 출신 중학교별 배정 가능 고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 학교 중에서 지원 순서에 상관없이 추첨 배정한다.

2025학년도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자율형공립고등학교 고입 배정 방식을 후기 평준화 일반고로 배정하기로 결정하고, 고입기본계획에 이를 사전 예고했다.

또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 금지 등 영재학교 입학전형 관련 개선 방안을 반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 감소로 지난해부터 적용했던 봉사활동 평가 기준 시수를 올해도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 권장시간인 7시간 이상이면 만점이 되도록 조정했다.

오는 7월16일까지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공고하며, 8월6일까지 전기고등학교와 후기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확정·공고한다.

특성화고 원서접수는 11월22~25일, 후기 일반고 원서접수는 12월17~23일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묵·점자 소식지 제작
전남도교육청

전남교육청이 매월 발행하는 소식지 '함께 꿈꾸는 미래'의 묵·점자혼용본을 제작·배포한다.

2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묵·점자 소식지를 올해 3월호부터 매회 100부씩 만들어 시각장애 특수학교(은광학교)와 광주·전남지역 시각장애인단체, 점자도서관 등 30여 곳에 배포한다.

점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이 손가락으로 더듬어 읽을 수 있도록 만든 특수 부호 문자다. 묵자는 약시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굵고 큰 활자다.

이번 묵·점자 소식지 배포로 시각장애인들도 전남의 교육정책과 생생한 교육 현장, 전남의 역사·문화 등을 접할 수 있게 됐다.

묵·점자 소식지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전남교육청 홍보담당관실 또는 전남도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